

3월
창간준비
7호

혁명 기망

- 4.11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 두갈래 길앞에선 '희망운동'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인가, 사내하청·비정규직 "철폐 투쟁"인가?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국제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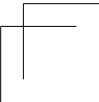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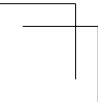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 명 7호

창간준비

Revolution

- 발행일 : 2012년 3월 24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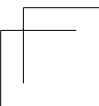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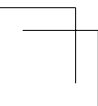
혁명

창간준비 7호

Revolution

목차

- 창간준비 7호를 내며 5
- 4.11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 고민택 9
- [현장기고] 두 갈래 길 앞에 선 '희망' 운동 - 강종숙 19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인가, 사내하청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인가? - 안지연 27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국제 정세 - 고민택 33
- [기고] 총선정국, 그리고 희망광장 - 아방가르드 45
- 지난호 목차 51



〈혁명〉 창간준비 7호를 내며



“야권연대 열망... 이정희 역전드라마”(3월 20일)

“야권연대 좌초 위기”, “이정희 ‘사퇴안해’”(3월 22일)

야권연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대표적 소부르주아 신문 〈한겨레〉의 엇그제와 오늘 1면 기사 제목들이다. 이틀만에 ‘야권연대’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한겨레〉 20일 기사에서 “고비의 순간 어려운 선택을 했고, 이를 돌파해내며 당의 위상과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고 찬사를 한 몸매 받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만 하루도 안 되어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으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야권연대의 아이콘과 함께 야권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겨레 22일치 사설)한 것인가?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나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따위는 안중에 없는 〈한겨레〉로서는 이번 사태로 반MB 야권연대가 깨질까봐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느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겨레〉는 같은 사실을 통해 민주당과 통진당 양당에게 “야권연대의 판을 깨고 공멸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사태를 슬기롭게 봉합하고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총선에 임할 것인가”고 짐짓 비장하게 다그친다.

노동자들을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의 지지 부대로 몰아가는 야권연대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온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으로서 야권연대가 깨지는 것에 대해 당연히 어떠한 우려도 위기감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우려와 위기감 조장을 규탄한다. <한겨레>나 ‘진보’진영 인사들 같은 민주대연합 세력들은 지금 ‘야권연대 좌초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야권연대의 정당함과 절실함을 강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위기감과는 달리, 야권연대가 그렇게 쉽게 깨질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이번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설사 ‘총선 야권 후보단일화’가 교란되고 새누리당과의 1:1 선거 구도가 일정 정도 빠그러지는 상황이 빚어질지라도 야권연대 그 자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가 단순히 후보단일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통진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자운동 내 민주대연합 세력의 원대한 전략 구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그들의 총노선이기 때문이다. <한겨레>나 진보 인사들, 시민단체들 같은 진보진영의 민주대연합 세력도, 그리고 민주당도 모두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은 별로 우려하고 있지 않고, 이번 사태 같은 것은 총선 이후라도 곧 봉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야권연대가 만약 깨진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통진당 간의 부정시비 같은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의해서만 깨질 것이다. 반MB 반새누리당을 넘어 자본가 지배체제 그 자체를 겨냥하여 펼쳐 일어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투쟁 앞에서 민주당이 그 계급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동 진영으로 넘어가거나 완전히 주변부로 밀려날 때 비로소 야권연대는 깨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노동자 투쟁이 반MB 야권연대와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혁명> 이번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야권연대에 맞선 대안적인 정세 구심과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세워내는 것을 핵심적인 정세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한미FTA 반대투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대학 등록금 폐지투쟁, 물가폭동에 맞선 최저

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전쟁 반대/핵 반대 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각각의 모든 전선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이러한 정세 과제를 부여 잡고 함께 돌파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동지들과 함께 고민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

* * *

이번 〈혁명〉 창간준비 7호는 지난 6호를 내고 나서 20일 만에 서둘러 냈다. 5월 1일 노동절에 〈혁명〉 창간호 출범을 앞두고, 4월 중순에 준비8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널 계획이라서 일정 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두께가 많이 얇아졌다. 마지막 준비8호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테이에 창간호를 잘 내서 벌충하겠다. 독자님들의 넓은신 양해가 있길 바랍니다. 투쟁! **혁명**

2012년 3월 22일



혁명의 광고

• 발행일 : 2012년 3월 16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6348-8318

신간소개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과거·현재·미래

-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



지은이 : 임길정, 최병승
크기 : 신국판(150*224)
페이지수 : 208쪽
값 : 8,000원

주문방법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하시고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주문시 입금자명을 알려주세요)
전화 : 02)6348-8318
이메일 : wrp@jinbo.net
입금계좌 :
우리은행
189-121648-02-101 양효식

2012년 시행 할 주간연속2교대 합의는 한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는 자동차산업 전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자동차산업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쟁점은 자동차산업 전체 쟁점이 된다. (중략)

현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3無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명확한 요구를 걸고, 투쟁을 선언하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부족한 실력이지 만 무모하게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중략)

주간연속2교대 투쟁에 대한 우리 주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쟁'이다. 우리는 2012년이 노동자 계급 원칙에 따라 제대로 투쟁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우리도 2012년 투쟁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다.

- 〈책을 발간하며〉 중에서

4. 11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고민택



#1

이번 4. 11 총선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이후 치러지는 선거 중 역대 최악의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해당 시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세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과 분리된 채 원리적/원칙적 수준(차원)에서만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이러저러한 현실적 이유(사실은 자기 조직이 처한 한계)를 들어 정세 대응을 미루는 것은 무기력함을 넘어설 수 없고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이번 4. 11 총선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이후 치러지는 선거 중 역대 최악의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4. 11 선거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번 4. 11 선거에서 제기해야 할 최대 정세적 과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단지 부르

주야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즉 반MB 야권연대로 왜곡/수렴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통진당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른 의회주의로 귀착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전

“이 선언운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 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투쟁 일선에 있는 모든 노동자 투사들 사이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할 것이다.” 정세적 과제를 구체적/실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정세 구심, 정치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지금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주노동당 분당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 지속된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논의와 ‘진보의 재구성’ 논의가 저지른 잘못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의 원인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데서 찾지 않고, 즉 그에 대한 발본적/근본적 평가를 미룬 채 엉뚱하게도 민주노동당 분당이 가져온 효과/후과를 봉합하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민주노총 관료지도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로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으로 돌아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주체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 논의였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는 시민주의/개량주의/의회주의 전략이 낳은 폐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건너뛰고(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추상적 언사, 사실은 비정치적/탈계급적 내용으로 가득 찬 ‘가치 논쟁’으로 둔갑시켰으며 민주노총 관료의 문제를 노동자계급 자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데서 찾지 않고, 즉 그에 대한 발본적/근본적 평가를 미룬 채 엉뚱하게도 민주노동당 분당이 가져온 효과/후과를 봉합하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민주노총 관료지도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로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으로 돌아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주체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 논의였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는 시민주의/개량주의/의회주의 전략이 낳은 폐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건너뛰고(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추상적 언사, 사실은 비정치적/탈계급적 내용으로 가득 찬 ‘가치 논쟁’으로 둔갑시켰으며 민주노총 관료의 문제를 노동자계급 자

#2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5년 이상에 걸쳐 지속된 잘못된 ‘진보정당’ 운동과 바로 그러한 ‘진보정당’ 운동을 낳고 또한 그 ‘진보정당’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처한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노조가 걸어온 행태에 있다. 그러나 짧게는 지난 2007년 말~2008년 초에 걸쳐 일어난 민



야권연대 세력에게 '선 진보대통합, 후 (조건부)민주대연합' 논리를 선사한 진보교연

체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진보교연'을 중심으로 한 소부르주아 지식인(교수, 연구자)이 크게 한 몫 거들고 나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마침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겨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정확히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대표적 인사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그들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변혁적 전망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을 향한 원망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안이 없다. 마침 당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적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도 그

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이른바 '선 진보대통합, 후 (조건부)민주대연합' 논리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도 진보신당으로서도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논리였으며 실제 그 뒤로 철저히 그렇게 활용 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력에 대해 주관적 착각을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을 철모르거나 정치를 모르는 원칙주의자 내지 정치적 아마추어(세력)으로 매도했다. (물론 사회주의 세력이 저지른 잘못은 그것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3

4. 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지배계급 분파들이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과 같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를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새누리당)

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지배체제와 그 일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지배계급 각 분파들로서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 민중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진 것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마치 정권만 바뀌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온갖 호들갑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목을 매는 통진당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정리하고제 폐지는 정리하고 '요건 강화'로,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 축소'로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고 있다. '야권연대' 공통 공약으로 한미FTA 폐지는 사실상 실체도 불투명한 '전면 반대'로 애매하게 처리하고, 제주 '해적기지' 논란에서는 아예 지배계급의 논리를 손들어주는 현상마저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때다 싶게, 반MB 프레임에서 탈출해 오히려 한미FTA와 제주 해

한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목을 매는 통진당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정리하고제 폐지는 정리하고 '요건 강화'로,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 축소'로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고 있다.

야권연대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과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은 자신들이 해결 할 의지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는 일이다.

군기지 문제를 공격적으로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바로 그 결과가 최근 반MB 대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계급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온갖 매체들이 이 때다 싶게 자본가정당 사이의 쇄신/혁신 경쟁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이슈나 쟁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반MB라는 개념 속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계급적대성마저 완전히 앗아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 입장에서도 겉으로와는 달리 내심으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권연대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과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은 자신들이 해결 할 의지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와 관심사

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는 일이다. 물론 그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립 서비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4

지난 2007년 대선 참패 뒤 민주당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2008년 촛불투쟁 당시 민주당이 초라한 몰골을 보였던 것도 그때 문이다.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촛불투쟁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촛불에 개입하고 싶어 했지만 시위 대열에 얼씬거리려는 것조차 거부당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알다시피 촛불투쟁의 내용이 급진적, 반자본주의적이어서가 아니다. 집권 기간 동안 대중들의 경험으로 이미 그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실체가 철저히 폭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조차 대중의 상태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을 들먹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던 민주당이 어느새 작년 희망버스에 이어 이제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는 당당히 대중집회 연단에 올라 노동자 민중들의 반이명박 분노에 대한 정치적 대변세력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이처럼 되살려 놓은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말할 수 있다. 노무현/김대중의 연달은 죽음도 분명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야권/후보단일



(사진 위) 야당 국회의원들이 구미KEC공장 앞에서 공장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아래) 안철수. 야당 중재안을 만들어 노동자투쟁을 주저 않힌 것을 노동자들이 알고 있고, 안철수, 박원수, 니꿈수 현상이 등장하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화' 즉 '야권연대'에 있다. 대중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결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민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 이들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권 기간 철저히 폭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민주당에게 야권연대라는 신인장을 바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다시 민주당 주위로 불러 모은 것이다. 그래 놓고는 그걸 근거로 또 다시 '야권연대'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통진당이다.

통진당으로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죽어가던 존재감을 되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통

진당 이전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전혀 신임/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야4당(야5당) 중 재단을 만들어 현자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던 역할을 되풀이 했던 것을 노동자들이 알고 있었던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 박원순, 나꼼수 현상이 등장하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대중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사실이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굴욕적인 태도마저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를 당 안팎에서 들어야 할 만큼 정치적으로 시달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 위기를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야권연대'를 밀고 나가는 것을 통해, 원내 교섭 단체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민주당과의 '공동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통진당은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야권/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런 통진당을, 아니 '야권 단일후보'를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천명



야권연대 단일 후보를 확정된 이후 기뻐하고 있는 통진당 지도부들.

가까이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약법, 노사관계 로드맵을 밀어붙여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노조 말살·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철저히 1% 재벌, 자본가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99% 노동자 민중들을 억누르고 생존권을 파탄으로 내몬 자본가 정권과 그들 주역들을 노동자가 나서서 지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한)도 기회주의로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야권연대'를 반대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자신들은 '야권연대'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오히려 이정희 통진당 공동대표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거제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만큼 한심한 몰골을 보이고 있다.

#5

한편 야권연대와 통진당 반대 흐름(더 정확 하게는 통진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통진당이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반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언운동본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흐름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반대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참가단’이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바로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희망버스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참가단’은 <점령하라> 제호의 유인물을 통해 일관되고 철저

하게 반MB 야권연대가 갖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 직접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동자참가단’ 역시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통진당 ‘범좌파’(정당)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언운동본부’가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즉각 정세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유보 또는 포기하고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

적어도 작년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노혁추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

선을 형성하지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노혁추는 희망버스 투쟁이 불러일으킨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투쟁, 즉 공식노조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진보정당’으로부터 촉발되거나 ‘진보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투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요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충기치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 정치흐름

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보정당들은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통합’이나를 놓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투쟁, 유럽에서의 광장점거시위, 마침내 미국에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과 투쟁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세였음에도 진보정당들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즉 야권연대에 해당하는 전국적 차원의 정세적 대안 구

심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2013~14년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자거나, 더 나쁘게는 선거 국면에 대한 개입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와 전술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도 대중에게 야권연대 반대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한다. 야권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조직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희망광장>에 모인 투쟁



2008년 촛불투쟁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중적 에너지도 혁명적 전망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부르주아 정치권으로 수렴되고 만다 지난해 말 한미FTA 반대투쟁도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질서있게 철저히 통제되었고 한미FTA 발효를 막아낼 수 없었다.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낡고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

혁명적 정치조직들,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평조합원 현장활동가들,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활동가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야권연대에 맞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쳐야한다.

당은 야권연대 지지 세력들에 의해 '국회 내에서 야권연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

지 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을 뿐, 야권연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민주당이 폭로 타격받고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한미FTA 반대투쟁의 성과는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다 챙기고 있지 않은가.

다시 촛불투쟁과 같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나오르면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힘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은 고립되거나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2008년 촛불 같은 자생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같은 제도정치권과 의회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의존할 것도 없었던 2008년 촛불 당시의 대중 동력이 현재는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대부분 수렴되거나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투쟁이 자생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그것도 그 내용이 반자본주의적, 혁명적인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식의 대기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진전되면 그 속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위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따위의 환상을 깨야 한다.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단지 '반이명박정권'/'반새누리당'만으로는 설사 촛불과 같은 자생적인 대중동력이 올라 오더라도 결코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을 넘어설 수 없다. 국회의 비준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반대투쟁 같은, 일시적으로 의회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대중투쟁에서도 민주

이명박 정권과 1% 자본 독재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어떻게 반MB 야권연대와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아 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인 총기치와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혁명적 정치조직들,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평조합원 현

장활동가들,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활동가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야권연대에 맞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쳐야한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한미FTA 반대투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대학 등록금 폐지투쟁, 물가폭동에 맞선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

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전쟁 반대/핵 반대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모든 투쟁전선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세구심을 작동시키자. 그리고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 아래 이 모든 투쟁들이 배치되어 반MB 야권연대를 딛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자.

혁명



[현장 기고] 두 갈래 길 앞에 선 '희망' 운동

강종숙



지난 3월 10일 시청광장에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유성기업, KEC, 콜트-콜텍, 코오롱정투위, 기아차해복투, 현대차비정규직, 대우차비정규직, 기륭전자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의 기치 아래 모여 들었다. 이들은 길게는 8년, 짧게는 몇 달 전 정리해고에 의해 공장 밖으로 쫓겨났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신음하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다.

이보다 앞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2주일 동안 이 사업장을 포함하여 한국 3M, 대우자판, 풍산금속 노동자들이 함께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 투쟁이 있었다.

한편, 2009년 77일간의 공장점거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희망버스

로 표출된 힘을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희망텐트' 투쟁을 전개했다.

작년 여름에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재능교육, 발레오공조코리아 등 정리해고, 비정규직사업장 노동자들이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노숙을 하며 '희망꽃밭'을 표방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이 모든 투쟁의 이름만 살펴봐도 알 수 있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며 '희망꽃밭'을 일구었던 공동투쟁단 동지들이 시청 재능농성장에서 진행된 재능집회에 결집한 모습.

듯이 이들은 모두 저마다 '희망'을 내걸고 아 직은 요원하게만 보이는 희망을 찾아 앞장서 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요원하게 보이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나의 길은 비야호로 선거의 해인 2012년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장에서 야당에게 몰표주기의 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한계에 달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에 이를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대안 정치세력이 되어 투쟁하길의 길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

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동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희망버스는 노동자계급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희망버스에 대해 아주 여러 곳에서 다양한 평가를 진행했다. 대중의 역동적 자발성에 대한 '재'발견, 조직노동자 운동의 더딘 대응 내지는 무대응에 대한 '재'평가가 주류를 이루었고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권고안이 나오고 보여줬던,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주체들의 모습, 더 나아가 희망버스 기획단, 좌파 정치세력의 대응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아쉽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사히 생환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아무야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태진행이 처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8.6 합의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의 마무리 국면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바가 있다.



(사진 위) 쌍용차 86합의를 기자회견중 사측모습.
(사진 중간) 국회권고안에 의지해 326일 만에 합의된 한진중공업.
(사진 아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거 25일만에 점거를 해제하고 농성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누구의 눈에도 그 권고안이 미진하고 100%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 이전의 숱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던 쓰라린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던 조직, 개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왜? 첫째,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대중들의 자발성에만 철저히 기댔기 때문이다. 정작 투쟁주체들은 언제나 이들의 종속변수였다. 둘째, 그 대중들을 하나로 엮을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김진숙이라는 아이콘에 집중된 ‘열망’은 있었지만, 정리하고 철회라는 슬로건

은 존재했지만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내용 논의는 부족했다. 셋째, 조직 노동자운동의 무능력과 좌파 정치조직의 실력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조직을 만들어 투쟁하는 이유는 운동을 조직하기 위함도 있지만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는 대중의 역동성을 한 곳으로 모아 기성체제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집중시키는 등 우리의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위치에 복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 조직운동은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글자 그대로 정말 목숨 걸고 크레인에 오르고 공장을 무덤 삼겠다는 각오로 전개한 투쟁들이 야당이 개입하고 중재안이 나오면서 정크본드 수준의 어음 한 장 달랑 받고 정리당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이제는 실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그래야만 더 이상 죽 썬서 개주는 꼴을 안 보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희망텐트, 희망발걸음,
희망광장에는 ‘희망’을 넘어설
정치가 필요하다.**

올해에는 작년 희망꽃밭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있다. 바로 선거를 목전에 두면서 이것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희망’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가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현재 야당의 중재로 투쟁을 마무리했던 사업장들은 최악의 결과물을 받아 안아야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21명의 죽음, 수백 명에 달하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 수십 명의 구속, 수백억 손해소송.

또 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악법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당했고 이를 막기 위해 투쟁하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바쳐야 했고 수백 명이 감옥에 끌려갔다. 이른바 민주정부 하에서 구속, 수배, 해고된 노동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최소한 희망광장에 모여 있는 노동

자 대다수는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만드는 데 앞장선 현재의 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민노당과 국참당의 무원칙한 야합에 반대하여 민노당을 탈당하고 야합 반대성명을 내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나아가 야권연대에 대해 맹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선언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데 동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희망’운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올인하고 있는 야권연대와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미조직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눈 밖에 난 투쟁사업장 위주로 그 동력이 형성되었는데도 정작 이들 사이에서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이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갖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한 토론을 거치지도 못했고, 정치적 대안세력에 대한 고민도 공유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이들 내부에서는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알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수준에서만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선거판

세가 박빙이거나 현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할 수록 선거일이 다가올 때 노동자 개인이 유권자로서 받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낫다는 생각, 똑같은 놈이지만 내가 기권함으로써 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놈들이 반사이익을 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등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현재의 '희망' 운동에 커다란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희망텐트에도, 희망광장에도, 앞으로의 '희망'운동에도 살아있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첫발은 이제 '희망'운동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희망텐트에도, 희망광장에도, 앞으로의 '희망'운동에도 살아있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희망광장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은 청와대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왜 청와대로 달려가지 않느냐고 목청 높여 투쟁의지를 밝히는 노동자들이기에 그러하고 이미 공장점거, 1,000일을 훌쩍 넘기는 장기투쟁의 경험과 실천으로 야권연대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겐 이미 상당한 정치적 합일점이 존재한다. 이제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이를 조직하여 더 크고 강력한 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그 첫발은 이제 '희망'운동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이명박 정권은 물론 결코 야권연대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단지 선언이 아니라 가장 노동자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이기에 단체협약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고, 다시는 야당 중재안에 속아 공장점거를 풀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집권여당일 때 한미FTA나 강정해군기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그 당시 뭘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민주당에 뒤통수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다. 그 때 민노당은 무엇을 했고 뭐라고 했던가? 삶의 벼랑 끝

에 서서 투쟁하다 분신한 노동자를 두고 비아냥댔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리고 그런 정권의 핵심에서 전도사를 자처하던 유시민의 당과 통합한 뒤 전태일과 노무현이 만났다고 선언하는 통진당에게 표를 던지라는 말인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과 야권연대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으며, 철면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야권연대를 통해 창출해 낼 정권이 노동자들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희망’운동이 이처럼 자명한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면 의도와 달리 ‘희망’운동조차 야권연대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지나친 소심함이다. 이미 ‘희망’운동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한 치의 두려움도 없고 주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이미 몇몇 조직과 개인의 이름으로 무원칙한 야합인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실천을 하지 않았는가? 또 이러한 ‘희망’운동의 정치에 동감하기에 함께하기 위해 모여드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희망광장에 녹여내고, 청와대 포위투쟁에 앞장서고,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고 한다면 4월 11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각 정당들은 이러한 힘에 의해 좀 더 왼쪽으로 와 있거나 왼쪽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부산을 떨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이 어느덧 대안세력으로 우리들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야권연대의 기만성과 폐해를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앞장서 폭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젖혀야 할 우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세력이 될 때만이 정리해고도 비정규직도 없는 노동자들의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자 이제 더 이상 두 갈래길 앞에서 멈칫거리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야권연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길이 결코 아님을 선언하고 노동자는 단지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혁명**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꽃들에게 희망을

희망광장



야권연대의 기만성과 폐해를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앞장서 폭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젖혀야 할 우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세력이 될 때만이 정리하고도 비정규직도 없는 노동자들의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쌍용차지부 생활안정기금
CMS모금운동

동지의 월 2,000원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단
(blog.jinbo.net/occupy77)

불법파견 “문제 해결”인가? 사내하청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인가?

안지연



2월 23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는 현대자동차에서 먼 미래에 가능한 당위적 구호가 아니라 당장 풀

어야 할 현실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수박에 없다. 하지만 판결 한 달을 훌쩍 넘긴 오늘 까지도 현장에선 선언적 수준 이상 이렇다 할 구체 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범죄를 행한 가해자 현대자동차 사측만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형국이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현대자동차 사측!**

**사내하청 ·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망설이는 현대자동차 지부!**

● ● ● ● ● ●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인가? 사내하청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인가?

-- △신규 비정규직 투입 및 계약해지 금지,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 금지 -- 또한 마찬가지다. 2주간의 논의 끝에 긴급지침을 내리긴 했으나, 지금도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전환배치는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장 기초 수순으로 해야 할 수배 중인 최병승 동지 조합원 신분 처리는 3주 가까이 지나서야 선언됐다. 조합비 납부 관련한 구체 실무 문제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경위만으로도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을 시측과 공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대차지부 태도는 앞선 문제 외에도 첫 주 요사업으로 제출한 전수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나이, 성별, 결혼여부, 부양가족 등 실태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항과 현재 일하고 있는 공정 상세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가 그렇다. 이미 ‘불법파견’임이 판결난 마당에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현장 활동가들 의문 속에 실시되고 있어서인지, 투쟁계획 하에 배치되지 않아서인지 실태조사의 수거율은 저조한 상태다.



협상테이블에 앉아 전수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내하청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면화할 것인가? 이 두 방안 사이에 절충은 없다.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실태조사를 잘하고, 판결 문구를 잘 해석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설명 회사 입장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라는 올바른 내용으로 진행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분명하게도 투쟁에 대한 태도 문제다. 지금까지 명확한 투쟁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측의 공세적인 대응과 제안에 이르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벌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불거진 불파 문제를 테이블에 앉아 전수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내하청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면화할 것인가.¹⁾ 이 두 방안 사이에 절충은 없다. 물론, 제 3의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물음을 회피하고선 단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1) 협상테이블을 통해 노사공동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태도는 비단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주간연속2교대 관련한 대응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 ● ● ● ●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인가? 사내하청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인가?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폐지를 분명히 목표로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명확한 기초와 전망을 갖지 않는다면, 뻔한 사측 술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얼마만큼 정규직화시킬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다.

물론 모든 투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과 문제는 이미 8년 넘도록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대법판결로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는 지금, 즉각 투쟁태세에 돌입하고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새삼 준비된 투쟁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지금은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 일 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쟁 확대를 위한 선거가 아닌 당선을 위한 행보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조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통합진보당은 국회 20석 이상 확보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진보권 보수권 모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떠드는 선거정국에, 똑같이



3월14일 수요집회 모습.

여론전이나 추상적 정치선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물적으로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 계획이 제출해야 한다.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설 때다.

**원 · 하청 공동투쟁,
출발은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부터!
파업, 파업, 총파업!**

현 상황의 관건은 비정규직지회에 달려있다. 투쟁주체이자 정규직화 대상인 비정규직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는 한, 노사공동의 합리적 문제해결이라는 지금의 이상한 정국은 깨지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장은 움틀거리기 시작했다. 기대감과 희망은 집회에 속속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수의 확대만큼 커져가고 있다. 수요집회는 현장 조합원 참여가 눈에 띄게 꾸준히 늘고 있다. (판결 후 2월29일 집회 150명 -> 3월7일 집회 170명 -> 3월14일 집회 200여 명) 최근에는 각 공장별 깃발을 띄우고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을 모아 행진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업체별 자체 회의에서 집회 전원 참석, 중야식 선전전을 결정하는 등 자발적인 투쟁결의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고와 징계, 그리고 비리문제와 내부 분열



핵안보가 '핵 테러'에 대한 '핵 테러'로부터의 안보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1년 9. 11 사태 이후다.

대 금지, 핵무기고(arsenals) 감축, 핵물질 안보 강조”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 이어서 2010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을 수정한다. 즉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에 비해 제한함과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나아가 미, 러시아 간 새로운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고, 제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테러리즘의 영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이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인식을 형성(강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현재 전 세계에 약 1,600 톤의 고농축 우라늄(HEU)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하여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1차 정상회의

를 통해 정상성명, 작업계획, 국가별 공약사항 언급 등의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

우선 핵안보 정상회의는 기존 제국주의 5대 핵무기 보유국(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의 핵 패권 체제 유지, 강화를 가장 일차적인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들 국가의 핵무기다. 따라서 핵(무기)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크게 ‘핵 군축’과 ‘핵 비확산’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전제로 나머지 나라들에게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핵 발전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그나마 국제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핵 군축’은 그야말로 아무런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핵 군축’(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마치 자본주의를 계속하면서 자본가를 없애겠다는 것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소리다. 핵은 단지 과학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산물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에 앞서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의 사용이 먼저 일어난 사실을 보



제국주의가 가하는 핵 파괴와 핵 위협이 버젓이 살아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그 어떤 명분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면 바로 알 수 있다. 제국주의는 단지 경제적 현상만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정치적, 군사적 패권 경쟁과 전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제국주의 아래에서 제국주의 사이의 정치, 군사적 경쟁과 대립, 그 연속선상에서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그 근본에는 경제적 경쟁과 대립이 있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상태를 말하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즉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에도 제국주의 사이의 군비경쟁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다. 사실 제국주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포화 상태다. 그럼에도 제국주의가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국방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도'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D(미사일방어) 체제에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 붓고 있다. 중국도 경제 성장에 맞춰 군사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군사강국 유지를 위해, 강한 러시아를 외치며 군비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만이 아니다.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제2의 무기 수입국이다.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국방계획 2020과 자주국방을 내세워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 냉전시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군비경쟁에 한창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공황이 한참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동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핵전쟁'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핵 비확산’도 현실적 진전이 없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대열로 들어섰다. 현재 이란 역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싸고 미국(서방)과 대립 중에 있다. 그럼에도 유독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따라서 ‘핵 비확산’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동의/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국주의가 가하는 핵 패권과 핵 위협이 버젓이 살아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그 어떤 명분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아니 명분과 설득력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제국주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의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핵무장의 필요를 느끼도록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앉아서 당하고 싶은 국가(지배계급)가 어디 있겠는가? 제국주의의 핵무기를 없애지 못하는 조건에서 ‘핵 비확산’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단지 ‘비핵/반핵’이라는 차원이나, ‘북 체제 또는 북 지배계급의 행태’에 대한 ‘비판/반대’라는 측면에



‘핵 일반’에 대한 반대를 들어 ‘북핵’도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하나하나 한 이야기일 수 있다.

서 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즉 ‘북 체제나 북의 지배계급’을 옹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핵문제’를 곧 ‘북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사태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비핵/반핵’과 ‘자위권’ 사이에서의 선택문제나 찬반문제로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원인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국주의가 행사하는 핵 패권, 핵 위협을 당연히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침묵(기권)하거나 사실상 패배주의(제국주의가 보유한 핵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에 빠진 채 ‘북핵’(폐기)만을 말하는 것은 제국주의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것이 곧 ‘북핵’을 지지(자)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 일반’에 대한 반대를 들어 ‘북핵’도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하나하나 한 이야기일 수 있다. 사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선전이 대중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수용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핵발전(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이 매우 현실적인 것도 사실이다. 미국 스타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불러일으킨 재앙을 누구나 목도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잦은 것도 대중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도 무시할 요인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지진이나 해일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그것들을 동일시(려)는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를 대중이 단지 지배(자본)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내면화한 결과 때문에만 벌어지는 현상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들 ‘급진적 주장’이 갖는 낭만주의 내지 무정부성에 대한 거부가 모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자 적 대성을 부차화하고 있는 사회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즉 ‘핵발전(소)’ 폐기를 계급문제와 분리시킨 채, 자본주의 체제를 폐기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횡단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경찰기마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의 ‘핵발전(기술과 능력)을 알리는 적극적인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에 대한 문제의식(대안이 될 수 없다는)이 대중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적어도 상당한 시일까지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국제정치적 조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즉 ‘핵발전(소)’의 장기적 폐기 결정 및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거기에는 단지 의식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여타 나머지 국가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후쿠시마 재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8년 만에 다시 원전

현실에 지속적, 일관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주장과 논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그것들의 폐기를 말하는 데 있어 궁극적,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투쟁이나 전략과 어떻게든 연결/결합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제국주의 전쟁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를 우선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치, 군사적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맥락 없이 표류할 가능성만 높게 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치, 정세적 맥락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말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는 어느 정도나 현실적인가? 이걸 거의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다.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지만(그리고 그 시기는 이미 야만



2010년 4월 6일, 미국 국방부에서 핵태세검토(NPR)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의 세계에 가깝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의 공상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비하면 제국주의에 의한 ‘핵 공격’ 가능성이야말로 가까운 장래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자 위협이다. 실제로 미국은 ‘핵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말한 ‘핵태세 보고서’(NPR)에 의하면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

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핵 선제공격’ 옵션은 현실에서는 이란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면에는 여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2001년 9. 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국방전략, 세계패권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체제가 종식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미국만의 일국 패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협(적)을 가시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러한 추상적/원칙적 전략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맥락과 결부해서만 그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테러와의 전쟁’은 무엇보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패권 관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는 고농축우라늄(HFNU)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사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자리이므로 북에도 이러한 물질들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견해이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월 동아시아 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 정상회의’ 보고서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가 핵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부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데서도 명확히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즉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지난 2. 24 북미합의가 성사(2. 29일 각각 발표)된 바 있다. 그 때만 해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랬다가 지난 3월 16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한 4월 12~16일 사이에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돌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전 세계가 일제히 북의 발표를 비난/규탄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탄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김정일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국에게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으며, 미국은 이를 알고도 북한과 2. 24 합의를 한 것이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합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미국으로서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기대했을 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왜 지금 시점에서 그를 발

[기고] 총선정국, 그리고 희망광장

아방가르드



이들의 한미 FTA저지 투쟁은 총선을 위한 기만적인 전술이었을 뿐이다.

총선정국, 한미FTA는 3월15일 발효되었다. 그것의 관철 여부는 차기 정권의 문제로 넘어갔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총대선에 선출시켜 달라는 것이 야권연대의 주장이다. 결국, 한미FTA 저지투쟁은 총선을 위한 기만적인 전술이었을 뿐이다. 총선정국은 마치 블랙홀처럼 다가와 모든 사안과 투쟁을 잠식하고, 의회주의와 개량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준다.

민주노총은 대대에서 8월 총파업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위낙에 그동안 뺑파업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 민주노총이기에 그 실행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이에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은 실질적인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총파업실천단으로의 전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현재의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실물적인 흐름을 형성하지는 후보전술과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보이

코트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한편, 희망버스에서 희망뚜벅이로 다시 희망광장으로 발전된 쌍차, 재능, 유성, 콜트콜텍, KEC, 전북고속, 코오롱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장기투쟁 사업장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상경투쟁은, 표면적으로는 이것 또한 현재의 총선정국과 부르주아 의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적인 투쟁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의 총선정국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하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안개 같았던 장막이 조금씩 걷히고 정세에 대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단이 가능해졌다.

8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한미FTA 저지투쟁이 총선을 위한 기만적인 전술로 끝났듯이, 야권연대를 지지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총파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의 10대 요구에 관한 입법투쟁은 부르주아 의회의 한계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며, 야권연대에 기대는 총파업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총

파업을 위해 울산 현대자동차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민주노총에 가입시켜서 민주노총과 총파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정세 판단에서 지극히 주관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민주노총 상층부(야권연대 포함)의 기회주의를 폭로하고 실제적인 총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평조합원 위주의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전선동과 조직화에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노동자 후보 전술이든 보이코트 전술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 현재 희망텐트 희망광장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두 전술은 모두 선거에 대한 개입이다. 그 내용에 따라 투쟁을 포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쟁과 독립적인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10대 요구는 총파업과 투쟁을 포괄하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그 선동을 위해서는 투쟁하는 동지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을 전부 포함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기에 투쟁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투쟁은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스스로 성장, 전환한다. 단사의 투쟁이 연대투쟁이 되고 연



한진중공업의 담장을 넘지는 못하였지만 진입 시도를 하였기에 물대포와 공권력의 폭력이 자행됨에 따라 대중들의 분노가 SNS를 장악했다.

대투쟁이 총파업 투쟁이 된다. 경제투쟁이 적들의 탄압에 의해 정치투쟁으로 급변하기도 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투쟁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체이다.

쌍차의 투쟁은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않았다. 3차 희망텐트에서의 공장진입 시도는 급속노조 상층관료의 투쟁통제를 위해 기획된 퍼포먼스에 멈추었다. 지난 희망버스의 예를 들면, 희망버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촉발된 것은 3차 희망버스에서부터였다. 비록, 한진중공업의 담장을 넘지는 못하였지만 진입 시도를 하였기에 물대포와 공권력의 폭력이 자행됨에 따라 대중들의 분노가 SNS를 장악했고, 그것이 또한 매스컴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4차 희망버스의 참가인원은 3차 때 만여 명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4차 이후, 투쟁을 조금 더 고양시키지 못한 것은 4차부터 민주노총이 주관

함에 따라, 투쟁을 야권연대를 부각시키기 위한 문화제 위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투쟁은 다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희망광장의 투쟁은, 표면적으로는 총선에 기대는(부르주아 의회에 기대는) 한계적인 투쟁으로 인식되었으나, 우리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희망광장의 투쟁은 총선을 돌파하는 투쟁이었다. 이는 3차 희망텐트에서 미처 고양되지 못한 투쟁을 고양시키는 연속선상에 와 있다. 그들의 투쟁은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에서도 소외받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더 이상 단사에 갇혀 있는 외로운 투쟁만은 아니다.

스물한명의 죽음을 몰고 온 2009년 쌍용자동차 살인진압이 경찰청 우수사례 5위에 선정되었다. 이에 격분한 쌍차 노동자들은 경찰청 담을 뛰어 넘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은 “우리는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라며 절규하였다. 콜트콜텍의 한 동지는 분홍조끼(희망광장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감금당하고 경찰들한테 폭행당해서 앰블런스에 실려 갔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간 일곱 명의 동지는 모두 연행되었다. 재능의 유명자 동지는



(사진위) '우리는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라며 절규하며 연행되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사진아래) 희망광장을 지켜달라고 피켓팅 호소를 하며 연행당하는 재능 유명자 지부장

연행되면서 트위터에 희망광장을 지켜달라고 피켓팅 호소를 하였다.

핵안보를 핑계로 경찰의 침탈과 불법약탈(엠프, 마이크, 감자탕, 텐트, 피켓, 손자보등 압수)과 탄압은 강화되었지만, 희망광장의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연행된 동지 대신 다른 동지들이 연대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희망광장의 불씨는 총선정국 하에

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바야흐로, 한국판 점령운동의 시작이다. 희망광장의 투쟁은 이제 전국 해고자 투쟁으로 그리고 전국 총과업 투쟁으로 가는 교두보로 스스로 성장 전화하고 있다.

쌍차투쟁을 단순히 연대투쟁의 일환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 투쟁을 표면적으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혁명적인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처절한 사람들, 이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야만 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파업으로 쟁의로 막대한 손배소를 당하고,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며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이들의 입장에 서지 못한다면, 그 전망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

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솔하게 겪어 왔던 전망 없는 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전투주의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혁명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그 정세와 투쟁은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않았다. 그 투쟁이 충분히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사회주의자의

임무이며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또한, 그 투쟁 속에서 연대하며 끊임없이 야권연대와 민주노총 상층부의 기회주의를 폭로해야만 한다. 우리는 총파업과 조직화를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등잔 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제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희망광장 동지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역명**



정세월간지 **혁명** 과 함께하는

정세토론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정세월간지(혁명)과 함께 하는 정세토론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독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의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도 정세토론회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매월 지역별로 진행되는 정세토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깊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 바랍니다.

정세월간지(혁명)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을 후원하고 계신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와 메일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제공해주시는 동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안내하고, 그 밖에 온라인으로발행되는 매체들과 기타 소식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 blog.jinbo.net

이메일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6348-8318

팩스번호 : 02)6944-8308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창간준비
1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고민택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양효식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 이형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김명석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호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자료] 사노련 항소심 모두진술문 - 오세철

혁명

창간준비
2호

목차

창간준비 2호를 내며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임천용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김명석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 이용대 / 김병호

더블딕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 양재훈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 좌클릭? - 남궁원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 김병호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 김태훈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혁명

창간준비
3호

목차

창간준비 3호를 내며

희망버스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석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양효식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고민택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천용

광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 김병효

유성 조합원 인터뷰 -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 이성호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이형로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 번역 / 양재훈

[연재 2]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 오세철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양효식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혁명

창간준비 4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4호를 내며
- 당 건설 투쟁의 기초를 밝힌다 - 고민택
- [출범 축시] 혁명은 온다 - 임성용 시인
-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이형로
-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2라운드 - 이민수
- 3자통합,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 임천용
-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 이종범
-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남궁 원
-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 구재보
- 희망버스운동 : 평가와 과제 - 김명석
-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 박현재
- [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 김병호
- 반혁명인가 계속혁명인가의 갈림길에 선 이집트 - 김병호
- [인터뷰] 재능지부투쟁 1500일을 앞둔 유명자 지부장
-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 회원들이 말한다 - 이지윤, 김남명, 정현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맞아 동지들이 보내온 메시지

혁명

창간준비
5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 5호를 내며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 양효식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 임천용

김정일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 고민택

유럽 위기와 전 유럽 노동자혁명 전략 - 양효식

한국판 ‘점령하라’ 운동, 쌍용차 희망텐트촌 건설을 위하여 - 김명석

[현자 비정규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 최병승

[재능 거리특강] 0.5평 비닐 텐트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 황지수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 김병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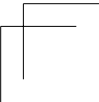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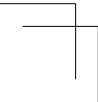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연재 4] 계급의식 중국에서의 마오주의의 환상과 적색테러 - 오세철

혁명

창간준비
6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
- [정치방침]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 선거 전술 - 기본 원칙과 방향
-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아가자!
- 한국판 점령운동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부터!
- 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세계 자동차산업
- 시리아 혁명과 아랍의 봄
- 그리스 혁명과 전 유럽 노동자혁명
- [기고] 나꼼수 현상을 통해 바라 본 한국사회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농협중앙회 040-12-2045042 (양효식)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7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